

만남

2021년 7월
통권 19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50주년	-----	14
슬기로운 신앙	-----	15
축일과 전례	-----	18
헌납금 납부자 명단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만듭니다. 일치로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분열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슴과 가슴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천상의 바람이 충돌하게 되고 마음의 분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하늘을 희망하기 때문에 고단한 과정을 감당하면서 쌓아 올립니다. 사랑은 끊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분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했는데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분심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번거로워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토마스 머튼). 사실 진정한 평화를 얻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평화를 줍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안에 평안히 설 때까지는 그 어디에도 평안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평화는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 식구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속셈을 가려내어 거짓평화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각자의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평화를 깬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미워하기에 앞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무질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미워하고 폭군을 미워하기에 앞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토마스 머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악을 떨쳐버리고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평화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야말로 그 어떤 것도 침해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마르 6,7-1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길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 ❖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6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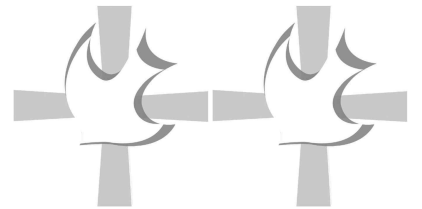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신앙인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으로 파견하십니다. 두 사람씩 함께 파견한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둘씩 파견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사는 삶이 소유의 삶을 의미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은 사랑과 나눔의 삶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죽고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로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되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을 단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소유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비움의 삶'은 평화를 동반합니다. 어떠한 불안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하느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 한 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집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을 떠날 때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이제는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단호함과 결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과거와의 절연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자세입니다.

복음의 핵심 단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씩의 파견은 조화와 하나됨’을 의미한다면 이 조화와 하나됨이 바로 ‘평화’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긴장 속의 고요함이 아닌 영원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의 자유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과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새롭게 거듭남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3. 축성과 축복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가지 성사 외에도 새로 산 목주를 축복하거나 또 새집이나 새 자동차를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러 다양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성사’(準聖事)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7항은 준성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 이러한 준성사는 성사의 특징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성사처럼 일정한 기도와 표징(동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한 예식에 따라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성사는 크게 축복, 축성, 구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복(祝福)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영적인 복”(에페 1,3)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성호를 그어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물, 장소, 음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 기도 축복,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 새로 입주한 집이나 사무실, 또 새로 구입한 자동차, 반려동물에 대한 축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축복 가운데 정규집전자인 사제가 아닌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세례 받은 누구나 그 자신이 ‘복’이 되어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후 기도를 바치는 축복이나 잠자리에 들거나 등교하는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에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 축복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축성(祝聖)

어떤 축복들은 지속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과 장소를 전례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축성이라고 합니다. 성물의 경우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단순한 상품이나 물건일 뿐이지만 축복을 받고 나면 성물이 되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만약 파손되었을 경우 땅에 묻거나 본당 사무실에 가져와서 폐기해야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물을 축복하고 싶을 경우, 사제에게 찾아가 “이 성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청하시면 됩니다.

14.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권수는 왜 다른가요?

Q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왜 성경 권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A 가톨릭은 개신교에 비해서 구약성경이 7권 더 많습니다.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으로 인해 히브리어 대신 그리스어가 일상 언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70인이 모여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그 결과 최초 히브리어로 쓰인 24권의 성경이 39권으로 나뉘어 번역되었습니다. 39권으로 늘어난 것은 열왕기, 역대기 등 일부 성경을 상·하 권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구약성경은 39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46권이 된 거죠?

A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모인 70인은 24권의 히브리어 구약성경 외에도 7권의 책(토빗기, 유딧기,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바룩서)을 성경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7권의 책은 비록 후대에 작성되어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지만, 똑같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올바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권수는 이 7권을 포함해서 총 46권이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개신교는 왜 구약성경을 39권이라고 하는 건가요?

A 기원후 90년경에 유다인들은 얌니아에서 회의를 열어 히브리어로 작성된 것만이 참된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며 7권의 책을 외경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훗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는 히브리어 성경만을 구약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경 권수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왜 가톨릭은 구약성경을 46권으로 정한 건가요?

A 가톨릭교회는 1548년 트렌토 공의회에서 구약성경 목록을 다시 한 번 46권으로 천명하였고 프로테스탄트가 외경으로 분류한 히브리어 성경 목록에 없었던 7권의 성경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성경 안에서 다니엘서 3장의 세 젊은이의 노래와 13장 수산나 이야기, 14장 벨과 뱀 이야기 그리고 에스테르기 중 70인역에서 추가된 일부를 가톨릭은 제2경전으로 분류하여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이를 외경으로 분류하여 성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중 공통된 39권 안에서도 상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 메시아와 그리스도

히브리말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마태 1,21 참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us)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말 ‘메시아’(Messias)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온전히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신망 있고 힘 있는 왕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힘 있는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론’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 현세적인 힘과 능력을 지닌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사람들이 당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현세적 영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아들이신 다음 곧바로 당신에게 닥쳐올 수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태 16,16-23 참조) 또한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들의 메시아사상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며 잘못된 메시아 개념을 올바르게 잡아 주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받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누리시는 왕권의 진정한 의미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밝혀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문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슴이 떨리고 생각이 좁아져 자꾸만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부모님도 늘 “너는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니?” 하고 핀잔을 주십니다. 이제는 여자 친구마저 ‘새가슴’이라고 놀려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실수하고 나면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자책하곤 하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젓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왜 저는 천덕꾸러기처럼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익숙해진 사람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니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자기 마음 안에 무덤을 파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을 보고 새가슴이니, 남자답지 못하다느니 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일수록 겁쟁이이거나 새가슴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인생길에 훼방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당황할까요?

인생은 ‘학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시적 학습’과 ‘묵시적 학습’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지요. 운전하는 법을 처음 배울 때는 명시적 학습 즉, 의식적 학습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묵시적 학습 즉, 무의식적으로 운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역으로 행동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하고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경직되며, 자신이 하는 생각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재앙화 사고’라고 합니다.

재앙화 사고란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 즉, 덜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마치 지금 바로 일어날 것처럼 인식합니다. 중간과정을 건너뛰는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려면 적어도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중간과

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최후 종말을 생각해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심하게 하고, 스스로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재앙화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막연한 부정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생각은 재앙적 상상을 촉발하고, 자신이 그것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불안감이 심해지면 재앙화 사고는 더 기승을 부려 실착하거나 실수하게 하고, 다시 더 심한 당황감과 당혹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싸움터의 장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임전무퇴의 기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긴장하고 싸움닭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장수가 연일 승승장구를 해서 왕이 손수 전장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장수에게 비법을 물었더니 장수가 말하기를 “밥을 먹을 때는 병풍을 치고 제대로 상을 차려 먹고, 시간 나는 대로 풍악을 즐겼으며, 싸움을 하지 않고 쉴 때는 시를 짓고 꽃구경을 하며 지친 심신을 달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비결은 ‘마음의 여유’라고 하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당당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황스러움은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되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는 것은 덜된 사람 또는 열등감이 많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뿐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할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풍에 시달리는 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때 가장 효과적인 안정 수단은 ‘성경 말씀’과 ‘묵주기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심리치료방법도 좋지만 단조롭게 같은 기도문을 외우는 묵주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성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최상의 심신 안정제입니다. 또한 성경의 좋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 안에 머무르는 기도 시간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기쁨과 유머 감각(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님)

슬픈 세상의 현실

가끔 알량한 지식적 성찰이지만, 넓은 맥락에서 세상의 현실을 조용히 돌아보고 성찰하다 보면, 뭔가 기쁘다기보다는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생의 시간보다는 살아온 생의 시간이 훨씬 많기에 슬프고 우울한 정서가 주된 정조로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조금 냉정하게 삶의 현실을 살펴봐도, 세상의 그렇게 희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예전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의 전체적 현실은 그리 낙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지만, 기후변화는 분명 지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알 것 같습니다. 미래가 영화 “승리호”의 내용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물질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쾌락에 흠뻑 젖어있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쾌락 욕망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자본주의 물질문화의 힘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낼 것 같다는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빈부의 양극화와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다는 신화가 가능한 시절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많이 미안한 느낌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과 지방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집니다. 바라보는 저도 그런데, 정작 그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들의 심정은 어떨까 가끔 상상합니다. 너무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전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봅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미래의 현실이 답답한 전망으로만 보이고, 미래 세대에게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오늘의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신앙인은 허무주의와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신앙과 친교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불안과 우울과 부정적인 사유와 태도가 가득한 현대 세상에서 신앙이 선포하고 증거 해야 할 거룩함의 덕(성덕)은 기쁨과 유머의 덕목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소심하거나 침울하거나 언짢거나 우울하거나 암울한 얼굴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한 이들은 기쁨과 즐거운 유머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영으로 다른 이들을 비춥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22항)

교황님께서서는 참 유난히도 기쁨(Joy)을 강조하십니다.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당신 문헌의 제목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의 세상에서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참 기쁨, 즉 신앙의 기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도 듭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껌질을 깨고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바로 성인이 당부한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리 4,4)”(<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22항). 신앙의 기쁨은 물질을 소비하면서 얻는 기쁨과 쾌락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쁨과 쾌락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128항).

신앙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진실에서 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질문을 던지고 그분께 답을 찾으며, 그분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겁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적 기쁨이며 초자연적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깊은 안정, 고요한 희망,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영적 충만을 가져옵니다.”(125항).

신앙의 기쁨은 무상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26항). 신앙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에서, 이웃들과의 친교에서 오는 선물이기도 합니다(128항). 신앙의 기쁨은 소비의 기쁨이 아니라 친교의 기쁨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웃들과 참된 친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친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 50주년 기념위원회의 회의 결과

2021년은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입니다. 50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애초에 계획했던 기념음악회, 사진전시회, 그리고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은 취소되었습니다.

② 50주년 기념미사는 외부 손님의 초청 없이 함부르크 공동체와 흑시 지방공동체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지방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조출하게 11월 21일 일요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1월 21일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흑시라도 그때, 공동체 나눔이 가능하다면 미사 후에 나눔의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③ 미사 중에는 지금껏 50주년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의 횟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④ 기념미사에는 지방공동체 가족분들, 브레멘, 오스나브뤼크, 하노버, 그리고 노르웨이 공동체 가족분들도 초대합니다.

⑤ 지금껏 50주년 행사를 위해 적립하였던 본당 예산 중 10,000유로를 함부르크대교구와 마산교구에 각각 5,000유로 씩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봉헌의 의미로 기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부르크대교구에는 위원장님과 회장님께서 주교님께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산교구에는 마산교구청 건립을 위한 헌금을 할지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를 할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청합니다.

⑥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지만 50주년 동안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시 50년 동안 특별한 행사나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김진호(프란치스코) 형제님에게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특별히 신심단체 활동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전례 기도와 개인 기도(심규재 실베스텔 신부님)

기도를 가리키는 말들은 많습니다. “하느님과 대화” 또는 “하느님과 만남”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빈 쪽정이이며, 기도 없는 믿음은 사그라지는 재입니다(J. 라칭거). 기도는 믿는 이들의 영혼이며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보기를 들면, 시간전례(성무일도)는 주님께 올리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시편 51). 기도의 바탕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비잔틴 시간전례는 이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침대에서 잠에서 일으키시어 제 지성과 제 마음을 밝히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시어 제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나이다. 아, 거룩한 삼위 하느님이시여!”

또한 어떤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도, 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도 천사들 성인들 세상의 교우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 바오로 사도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1테살 5, 17-19).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묵주의 기도, 십자가의 길과 같은 정해진 기도를 계속하거나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일하고 쉬고, 다른 이들과 소통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 기도인 시간전례(성무일도)는 하루의 특정 시간들을 축성함으로써 하루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느님께 속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이름 없는 순례자”처럼 호흡에 맞추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짧은 화살기도로 하루의 순간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화살기도는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원을 담아 봉헌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루 동안 “기도의 정신을 간직하는 것, 곧 언제나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하느님과 일치 안에 머물러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 아린체).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지도 않습니다. 인격 전체로 기도합니다.

전례 기도는 교회의 공식 기도로 공적인 기도

기도는 전례 기도와 신심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례 기도, 공동 기도, 개인 기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례 기도는 공동기도의 근원이고 최고의 형태입니다. 공동 기도에는 전례 기도와 신심기도가 있고, 신심 기도는 공동으로도 개인으로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전례 기도는 교회의 공식 기도로 공적인 기도입니다. 미사와 시간전례(성무일도)가 대표적입니다. 공적이고 공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규정한 본문과 예식을 따라야 합니다. 전례 기도 밖에도 신자들이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 성체 조배,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묵상, 구일 기도, 성모님과 성인들께 바치는 기도와 같이 여러 신심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신자들이 성당이나 다른 곳에 함께 모여 바치지만 아무데서나 개인적으로도 바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바치는 신심기도(개인 기도)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 탄원과 전구 같은 정감을 더욱 깊이 표현할 수 있고, 침묵 안에 더 길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자들의 영성 생활은 전례에만 참여해서 끝나지 않는다. 신자는 공동 기도에 불림을 받지만 또한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해야 한다.” (전례 12항)

전례는 모든 기도의 샘이며 정점입니다. 전례는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는 성령이십니다(교리서 1091). 전례는 기도를 순수하고 올바르게 품위 있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끊임없이 풍요로운 영감을 줍니다. 전례에서 말씀을 들음, 관상과 침묵, 경배, 찬미, 감사, 봉헌, 간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례 체험을 자신의 기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례에게 감동을 요구하거나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울려나오는 영적인 영향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침묵은 예식의 장식품이 아니라 구성 요소

전례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움직입니다(G. 보셀리). 하느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목소리로 해석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느님을 말씀으로, 대화로, 관계로 체험합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 7,23) 이러한 체험은 “들어라, 이스라엘아”(쉐마 이스라엘; 신명 6,4) 기도로 변합니다. 이는 유대교 전통에서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바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한 카시아노는 이집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시편 바치는 방식을 전합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선창자가 노래하는 시편을 모두 앉아서 듣습니다. 이어서 시편들 사이에는 침묵 기도의 여백이(interiection orationis) 뒤따릅니다. 이 침묵은 영적인 깨달음을 지향합니다(1코린 14,15). 이는 미사나 시간전례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석 활동입니다. 해석은 문자의 뜻을 넘어 다른 의미, 곧 살아 있는 의미를 밝히는 활동입니다. 듣고 새긴 말씀을 이제 자기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편을 낭송하면서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전례는 관상의 큰 스승입니다. 관상은 기도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전례의 한 부분이자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관상은 전례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전례로 돌아갑니다. 전례의 말씀과 기도와 성사는 관상의 불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며, 성사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관상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이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M. 드브렐). 전례는 침묵에 예식의 품위를 줍니다. 다시 말하여, 전례 안에서 침묵은 예식의 장식품이 아니라 구성 요소입니다. 침묵은 표지의 중개가 더 이상 필요 없이 직접 그분과 만나도록 이끌어줍니다. 전례는 이렇게 체험합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주님,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왔나이다.”(성탄 팔일 축제 입당송; 지혜 18,14-15).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에스텔	우영주 강새벽	25일	크리스토퍼	김영기 Rabe
3일	토마스	강신행 이정수 홍종각		야고보	김형웅
12일	베로니카	김매자 육종인 박성아	26일	안나	김순임 심은희 최경숙
20일	엘리아 예언자	이동윤		아나벨	한선지 정정숙
21일	다니엘	심동근 김무송 김선일		빅토르	허두욱
22일	막달레나	김원자	28일	마르타	김정숙
24일	크리스티나	이정옥 문귀옥	29일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마스	탁준성(H)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26일	안나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김혜림(B)	31일	이냐시오	목진만(H)

❖ 7월 성가번호 ❖

7월	입당	봉헌	성체	파견
4일	25	215	499	437
11일	63	211	159	31
18일	439	217	152	411
25일	21	219	163	6

❖ 7월 전례 봉사 ❖

7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4일	백정선(토마스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1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18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5일	최성자(벨라데타) 김매자(베로니카)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X

❖ 헌납금 납부자 명단 ❖

♥ 6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6월 21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이영희 Eggerstedt,

* 계좌(6월 17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김유석,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남궁춘배, 배성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이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 21일 자 통장 잔액은 37.341,16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Hamburg 공동체 소식

1. 7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7월에도 신심단체 모임은 없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임에 관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 평일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미리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7월에는 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만큼 7월에도 지방공동체 미사는 봉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7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2	금			
3	토	성 토마스 사도 축일		브레멘 공동체
4	일	연중 제14주일		
5	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오스나브뤼크
11	일	연중 제15주일, 초복		
12	월			
13	화			
14	수			
15	목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16	금			
17	토	제헌절		하노버 공동체
18	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19	월			
20	화			
21	수	중복		
22	목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대서		
23	금			
24	토			
25	일	연중 제17주일		
26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27	화			
28	수			
29	목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30	금			
31	토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